



최희섭의 홈 데뷔전(KIA-롯데)이 열린 22일 광주구장에는 1만여명의 야구 팬들이 몰려들어 최희섭의 홈런포가 터지기를 기대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3회말 최희섭이 관중들의 응원을 받으며 타격을 하고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빅초이 파워 보여달라”...광주도 ‘구름관중’

잠실벌을 뒤흔든 ‘빅초이’ 광풍이 ‘빛고을’ 광주도 강타했다. 지난 2001년 일본에서 돌아온 ‘이종범 효과’ 이후 광주에선 7년만에 맛보는 야구 열풍이다. 최희섭(28·KIA)의 광주 홈 데뷔전(KIA-롯데)이 열린 22일 광주구장은 예상대로 경기 시작 전부터 최희섭 열풍에 들쭉였다.

한낮 최고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 초여름 땀병 더위에도 경기시작 2시간전부터 1루와 3루쪽 관중석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오후 5시가 넘어서면서 1루쪽 스탠드는 노란 막대풍선을 든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평일 오후 6시30분 경기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구름관중’이 모인 것이다.

평소 오후 4시 30분에 문을 열던 무등경기장도 물러



최희섭 홈 데뷔전 무려 1만 관중 몰려

예매표도 평일 평균보다 30배 늘어나

드는 관중들 때문에 20분 빠른 4시10분부터 입장을 허용했고, 경기장 입구에 위치한 매표소는 5회가 지나도록 입장권을 끊으려는 팬들로 북적였다.

무등경기장 주변 도로도 이날 밤 늦게까지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었다.

입장관중은 올 시즌 평일 홈 평균(3천505명)을 훌쩍 뛰어넘는 1만여명이 들어왔고, 예매표도 평일 평균 50매 보다 30배나 늘어난 1천500매가 팔렸다.

최희섭 ‘광풍’이 평온하던 평일 광주구장을 뒤흔든

것이다.

이러한 ‘최희섭 효과’는 이미 지난 주말부터 예고됐다.

최희섭의 국내 첫 데뷔전이 열린 지난 19일 잠실구장은 경기시작 3시간 전부터 비가 오락가락 했지만 올 시즌 첫 만원 관중(3만500명)을 이끌어냈고, 20일엔 2만8천894명의 관중이 몰려오는 등 ‘최희섭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앞선 주말까지 두산의 주말 평균 관중이 1만8천명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희섭이 무려 2만여명의 관중을 더 끌어모은 것이다.

잠실은 주말 이틀동안 입장수익만 3억5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

KIA 구단은 이번주 남은 롯데와의 2연전(23~24일)에서도 대박 관중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석가탄신일’인 24일 오후 2시 휴일 경기엔 22일 현재 예보된 비만 내리지 않는다면 올 시즌 첫 만석(1만4천600명)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규시즌에서 광주구장의 가장 최근 만원 관중(1만4천600명)은 지난해 4월29일 삼성전이다.

하지만 당시엔 지역 소풍물의 ‘네일데이’로 무료 입장이었다.

이들 빠른 최근 광주구장의 순수 만원사례는 지난 2003년 4월 5일 한화와의 시즌 개막전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백차승 2승 실패



미국의 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의 우완투수 백차승(27)이 잘 던지다 갑자기 무너져 2승 달성에 실패했다.

백차승은 22일(한국시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제이콥스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투수, 6.1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8안타를 맞고 5실점했다.

볼넷 1개를 내주고 삼진은 6개를 잡았다. 백차승은 아메리칸리그 득점 3위인 클리블랜드 강타선을 상대로 6회까지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7회 흔들리며 3점을 내줬다. 백차승은 3회부터 6회까지 삼자범퇴를 기록하는 등 6회까지 13타자를 연속으로 상대하며 주자가 베이스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차승은 6회 투아웃 뒤 블레이크를 상대로 볼카운트 2-2에서 변화구가 높게 들어가면서 좌중월 솔로 홈런을 두들겨 맞았다. 백차승은 추가 실점 없이 6회를 끝냈지만 7회 들어 연속 안타를 맞으며 흔들린 끝에 결국 마운드를 내려왔다. 시애틀은 2-5로 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연아 ‘피겨 여왕’ 지키기

‘코치 드림팀’ 뒤편

점프·스핀 등 4개 분야

세계 최고 지도자 영입

피겨 스케이팅 시니어 무대 2년차를 맞은 김연아(17·군포 수리고)의 세계 제패를 위해 환상의 ‘코치 드림팀’이 뒤편다.

캐나다 토론토 전지훈련 3주째를 맞은 김연아는 ‘토론토 크리켓 스케이팅 & 컬링 클럽’에서 매일 8시간씩 이어지는 힘든 훈련을 견뎌내면서 2007~2008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다.

더불어 김연아를 지원하기 위해 안무와 점프, 스케이팅 기술 및 스핀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4명의 코치진이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 훈련의 성과를 끌어 올리고 있다.

김연아의 에이전트사인 IB스포츠의 구동희 이사는 22일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최강의 코치진이 김연아를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안무를 맡은 데이비드 윌슨 코치 외에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아이스댄싱 동메달리스트이자 TV해설

가로도 유명한 트레이시 윌슨과 네덜란드 피겨선수권대회에서 세 차례나 정상에 올랐던 코치 경력 20년의 에스트리드 쉬랍이 최근 가세했다.

말 그대로 ‘코치 드림팀’이다.

캐나다 국내 선수권대회 8연패(1981~1988년)와 함께 동계올림픽(1984년, 1988년)에서 두 개의 은메달을 따냈던 오서 코치는 김연아를 전담하기 위해 최근 아이스쇼 무대에서 은퇴하는 결단을 내렸다.

오서 코치는 ‘미스터 트리플 악셀’이라는 별명답게 김연아의 점프연기를 전담하고 있다.

또 윌슨 코치는 사샤 코헨(미국)과 조애니 로제트(캐나다)를 비롯해 에밀리 휴즈, 엘리자 시즈니(이상 미국)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안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다.

김연아의 스케이팅 기술과 표현력을 맡고 있는 트레이시 윌슨 코치는 1982년부터 7년 연속 캐나다 국내선수권대회 아이스댄싱 우승 뿐 아니라 세계피겨 선수권대회에서 두 차례 동메달을 따내고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경태

2007 한국프로골프 시즌을 초반부터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홍순상(26·SK텔레콤)과 김경태(21·신한은행)의 샷 대결이 주말에도 이어진다.

24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이천 비에이비스타 골프장(파72·7천147야드)에서 열리는 SK텔레콤오픈은 신세대 라이벌로

신세대 라이벌 샷대결

KPGA SK텔레콤 오픈 내일 개막...김경태·홍순상 순위 다툼 관심

떠오른 홍순상과 김경태의 다툼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홍순상은 20일 끝난 XCANVAS오픈에서 김경태를 4타차로 따돌리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려 3주 연속 우승을 노리던 김경태의 상승세를 꺾어 놓았다.

2003년에 프로로 전향한 홍순상은 해병대 전역이후 사실상 지난 해 첫 시즌을 보내면서 감각을 익혔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전지훈련을 거치면서 샷이 더 정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주 열리는 SK텔레콤 오픈은 소속사가 주최하는 대회인데다 자신의 이름을 갤러리들에 알린 대회이기도 하다. 작년 이 대회에 위성미(18·나이키골프)가 출전, 남자 선수들과 샷대결을 해 초기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지만 미셀 위를 보러 왔다가 출중한 외모의 홍순상에게 반한 갤러리들이 많았다.

홍순상은 최경주(37·나이키골프)도 출전한 작년 대회에서 공동 5위에 올라 깊은 인상을 남겼다.

SBS토마토저축은행오픈과 GS칼텍스 매경오픈을 연속 우승한 김경태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확실한 강자의 자리를 굳혀

시즌 상금왕과 신인왕을 향한 발판을 마련

할 태세다.

비록 XCANVAS오픈에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2위를 차지해 기복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연재된 연승 행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력을 입증했다.

또한 GS칼텍스 매경오픈에 이어 SK텔레콤오픈도 아시아안투어를 겸하고 있는 대회여서 김경태는 아시아안투어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홍순상이나 김경태에게 쉽게 우승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둔 ‘호주의 강호’ 애런 배틀리가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01년과 2002년 SK텔레콤 오픈에서 연속 우승한 위창수(34·테일러메이드)도 샷을 가다듬고 있다.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허석호(34·테일러메이드)를 비롯해 작년 상금왕 강경남(23·삼화저축은행), 2005년 비에이비스타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 인연을 맺은 김대섭(26·SK텔레콤) 등 베테랑과 영건, 해외파들이 출전에 필드를 뜨겁게 달군다.

한편 총상금 6억원에 우승 상금 1억2천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200인차와



홍순상

150인치 대형 LED 전광판이 골프장 4곳에 설치돼 현장의 모습과 선수들의 성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SBS와 SBS골프채널이 실황중계하며 스타TV도 이번 대회를 아시아 전역에 중계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